

# 여수·순천·광양 광역 쓰레기장 추진

### ‘발등의 불’ 순천시 제안...부지 선정·주민 반발·보상 지원 등 과제 산적

전남 동부권 여수·순천·광양시가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시는 지난달 2일 민선 8기 첫 행정협의회에서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사업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세 지자체 담당자들이 만나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논의는 매립장 신설이 시급한 순천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순천에서는 하루 200t의 폐기물을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해왔는데, 왕조동 매립장이 포화 상태여서 새로운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선 7기 지역 내 매립장 신설 계획을 세우고 후

보지까지 선정했으나,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다 인근 광양시에서도 크게 반발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순천시는 민선 8기 광역 문제 협의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통해 같은 생활권인 여수와 광양까지 아우르는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계획을 여수와 광양시에 제안했다.

순천시는 세 지역이 같은 생활권이고 비용 절감, 시설 운영 효율성, 여수·광양산단과 연계한 에너지원 확보 등 측면에서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돼 매립장 신설이 모든 지자체의 당면 과제인 점도 공동 추진 필요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

순천시의 제안에 여수·광양시도 공감을 표하고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생활권인 세 지자체가 일단 공동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부지 선정·주민 반발 등 과제가 산적해 성사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지 문제, 주민 수용 등의 민감성 때문에 지자체들이 신중히 접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수는 하루 280t을 처리하는 소각장 1곳과 매립장 2곳, 광양은 하루 190t을 처리하는 매립장이 1곳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여수·순천시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 지역에 건립하려고 해도 어려운 데 3개 지역이 합의를 보려면 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고흥군, 제2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선정

### 무료진료소 운영 이창우 원장·‘섬김간호’ 체계순씨

고흥군이 최근 제2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로는 간호부문 성마모로 가정호스피스센터 체계순 센터장, 봉사부문은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이 선정됐다.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은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0여년 간 헌신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계승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으로 나뉘어 각 부문별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체계순 센터장은 “섬김간호” 개념을 최초로 정립해 환자와 가족에게는 섬김을 베풀고 간호사에게는 훌륭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가정방문형 호스피스와 사별가족 돌봄서비스를 통해 아름다운 이별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창우 원장은 노숙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 무료진료 및 수술과 2004년 이후 매년 1회 이상 해외 의료봉사 및 무료진료소를 건립 운영해오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내·외국인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사업에도 기여했다.

마리안느 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장인 (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김연준 신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돼 봉사대상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봉사정신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흥군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광양의 멋과 맛, 코스대로 즐겨요

### 시, ‘조르주 루오전’ 도립미술관·서천꽃길·불고기 특화거리...반일·당일·1박2일 코스 선봬

광양시가 가을로 접어들 10월, 광양 멋과 맛을 만끽할 수 있는 ‘광양여행코스’를 내놨다.

광양시는 6일부터 ‘조르주 루오’전이 열리는 전남도립미술관과 서천꽃길과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등 가을의 낭만과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반일코스,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를 구성했다.

반일코스인 ‘광양에서 하나절’은 전남도립미술관&광양예술창고-광양불고기 특화거리-서천꽃길을 잇는 코스로 원도실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여행이다.

특히 10월 한 달은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전남도립미술관 등을 중심으로 광양시보건소가 추진하는 ‘광양불고기 스텝투어’도 마련돼 있어 1석 3조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6일 전남도립미술관에서 개막하는 특별기획전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 역시 여행의 품격이 높기에 충분하다.

또 여수사건과 한국전쟁 등 대한민국 격동기 현장과 광양 유당공원, 경주 불국사 등 국내 곳곳의 과거 풍경과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이경모 사진전: 역사가 된 찰나’ 전도 관람객들의 감동과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6일부터 특별기획전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이 열리는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시 제공>

광양의 하룻밤을 꾸미는 1박 2일 ‘광양에서 별하는 밤’ 코스는 백운산 자연휴양림부터 망덕포구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육 가옥까지 광양의 자연과 문화를 두루 여행하고 아름다운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곡성군,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우수사례’

곡성군이 AI·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우수 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과 4종의 블루투스 디바이스(혈압계, 혈당계, 활동량계, 체중계)를 연동해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7가지 미션 부여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 실천을 유도한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는 전국 83개 보건소가 참

여하고 있으며 곡성군은 2차년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인정됐다.

곡성군은 타 기관에 비해 인구수 대비 참여 인원 목표를 높이 설정한데다 그에 맞게 참여율 또한 73.5%로 높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또 사업 참여자들의 건강 개선 효과와 만족도가 높아 6개월 서비스 과정이 종료된 뒤에도 다시 등록을 요청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사업의 효과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곡성군을 방문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 보성군, 이순신 유적지 연계 우수정책 선정

보성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하반기 우수정책 제안 7건을 선정했다.

보성군은 지난달 29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하반기 군정발전 우수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보성 열선루 활용 방안 및 ‘이순신 장군의 보성에서의 9박 10일’ 관련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아이디어로, 지난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약 20일간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7건이 접수됐으며 창의성과 경제성,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의 기준에 따라 소관부서 및 외부전문가의 거쳐 창안 등급을 결정했다. 군은 1차 심사에서 13건을 선별한 후 통상 1건, 장려상 2건, 노력상 4건 등 총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발된 제안 중에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제 여행 기획과 로고제터를 활용해 이순신 장군 및 12척의 배를 구현하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이순신 장군이 ‘금신전선 상유십이’를 올린 보성 열선루.

우수정책제안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채택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실행가능성 등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보성 열선루는 이순신 장군이 1597년 명량해전을 앞두고 선조임금에게 ‘금신전선 상유십이(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장계를 올린 역사적 공간이다. 보성군은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성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활용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여수시, 전남 첫 ‘시민소통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작

여수시가 전남 지자체 최초로 공무원과 시민이 문자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발송하던 시정 안내 메시지는 질이나 답변 등 소통이 불가능하고 재차 전화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시에서 발송한 통지서나 안내문 등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보내 간편하게 질의할 수 있고,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시정 안내 메시지에서는 불가능했던 문서파일 등을 다수의 수신자에게 일괄 발송할 수 있고, 예약(참석) 등 간단한 민원 안내도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에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적극행정을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